

## 202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 정답

1	③	2	⑤	3	②	4	⑤	5	⑤
6	③	7	①	8	⑤	9	③	10	③
11	④	12	①	13	②	14	①	15	②
16	②	17	①	18	③	19	⑤	20	②
21	④	22	④	23	④	24	①	25	①
26	④	27	④	28	③	29	③	30	④
31	②	32	①	33	②	34	⑤		

## 해설

## [1~3] (독서 이론) 이채윤·조병영, 「글 이해 과정에서 작동하는 독자의 응집성 기준에 관한 개념적 고찰」

인지 심리학에서는 정신 표상의 존재를 상정하고 이 표상이 짜임새 있게 뭉쳐진 정도를 응집성이라 한다. 정신 표상의 응집성은 독서 중 높아질 수 있으며, 독자는 글을 읽을 때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응집성 기준을 조정한다. 독자는 응집성이 응집성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독자 주도적 독서를 선택하며, 응집성이 응집성 기준보다 높을 때는 자동적 독서를 선택한다. 독자 주도적 독서를 선택한 독자는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독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 1.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3문단에 따르면 높은 응집성 기준을 설정한 독자가,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에서는 응집성 기준을 응집성보다 낮추게 된다. 이는 응집성 기준이 독서 중에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독서 동기는 응집성 기준을 조정하는 데 관여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② 1문단에 따르면 응집성은 정신 표상이 짜임새 있게 뭉쳐진 정도이다. ④ 1문단에 따르면 정신 표상의 응집성은 독서 중 글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높아질 수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독자 주도적 독서는 의식적으로 독서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이며, 자동적 독서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독서 방법이다.

## 2.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⑥에서 학생은 글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어려움을 느끼며, 이를 이유로 응집성 기준을 응집성보다 낮추었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에서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의문의 해소가 독서 목적임을 의미한다. ② 학생은 ㉢에서 글의 특정 부분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읽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내용의 중요도를 높게 평정한 결과에 해당한다. ③ 학생은 ㉢에서 글의 내용에 눈길이 가 꼼꼼하게 읽고 있다. 이는 내용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응집성 기준을 응집성보다 높인 것이다. ④ 학생은 ㉠에서 집중하여 글을 읽기 시작했으며, ㉢에서 글을 천천히 읽고 있다. 이는 학생이 응집성 기준을 응집성보다 높인 것이며, 내용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 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읽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독서 전략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전략이다. ③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는 전략이다. ④ 자신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을 연관 지으며 읽는 전략이다. ⑤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 전략이다.

## [4~9] (인문 주제 통합) (가) 베레나 크리저, 「예술 가란 무엇인가」 / (나) 카이 하머마이스터,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가) 미학적 담론에서 천재의 개념은 시대적으로 변화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는 자연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이후 예술가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천재는 점차 자연을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독창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신이나 자연의 권위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나) 가다머는 이해의 역사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가 항상 역사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존재이기에, 예술을 현실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가다머의 관점에서 천재 미학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가다머에 따르면 천재 미학은 창작자인 천재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해에 있어서 수용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예술 작품을 역사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보게 만들 수 있다.

## 4.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법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중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천재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다루고 있으며, (나)에서는 천재 미학에 대한 가다머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시대에 따른 천재 개념이 언급되었으므로 천재 예술가의 유형이 분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에는 천재 미학에 대한 가다머의 입장이 언급되었을 뿐, 이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는 과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② (가)에는 시대에 따른 천재 예술가의 특성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천재 미학을 비판하는 가다머의 입장이다. ③ (가)에는 천재의 예술 작품이 전범으로 기능하였음은 언급되었으나 이 기능이 소실된 원인이 분석되지 않았다. (나)에는 가다머의 입장에서 천재 미학이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언급되었다. ④ (가)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에게 모방의 임무가 부여되었다는 내용과 천재의 예술 작품이 전범으로서 기능한다는 칸트의 관점이 언급되었으나, (나)에는 천재 미학에 대한 가다머의 입장이 제시되었을 뿐 천재 미학의 기원이 제시되지 않았다.

##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칸트는 천재의 예술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에 관한 판단 준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칸트가 예술에 관한 판단 준거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존재로 천재를 규정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중세 시대에 예술은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② 뒤보는 천재를 자연에서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여 모방하는 존재로 보았다. ③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가의 임무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었으며 천재는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규정되었다. ④ 뒤보는 천재의 모방이 개인 고유의 표현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 6.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가다머에 따르면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이해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게 되며, 양자 간의 대화 과정에서 지평의 융합이 일어나도 간격은 존재한다. 즉 작품과 수용자의 합치를 계기로 지평의 갱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다머는 미적 구별을 비판하고 미적 무구별을 주장하며 이해에 있어서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가다머는 이해의 주체와 대상이 서로 물음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에서 지평이 융합한다고 보았다. ④ 가다머는 주체에게 축적되어 있는 정신적 자산 일체로서의 ‘현재의 지평’과 대상이 지닌 역사적 배경 일체로서의 ‘역사적 지평’이 융합한다고 보았다. ⑤ 가다머는 ‘영향사적 의식’ 안에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7.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A]에는 가다머가 주장하는 미적 무구별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가다머는 예술을 역사성으로부터 독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미학은 아름다운 예술이 생득적인 천재의 독창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므로, 이는 가다머의 입장에서 외부적 맥락을 간과하는 처사가 된다.

【오답풀이】 ② 칸트는 아름다운 예술이 천재의 생득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③ 칸트는 아름다운 예술을 천재의 생득적인 능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술가의 지위가 사회적 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④ 칸트는 아름다운 예술을 천재의 예술로 보기에, 아름다움을 구별하는 능력을 천재에게서 박탈하는 처사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⑤ 칸트는 천재를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예술가가 형성한 세계의 고유성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8.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가다머는 천재 미학이 미적 구별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된 법칙의 형상화를 중시하는 창작 전통을 해체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기존의 규범을 부정하려는 인간의 주체성이 천재 미학에 의해 비하된다는 것이 가다머의 입장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니체는 자기 욕망의 분출을 예술의 본모습이라고 보며, 낭만주의 시대에서는 개인의 감정이 중시되었다. ② 니체는 예술가의 뛰어난 능력을 ‘희귀한 우연’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칸트는 아름다운 예술이 소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③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천재는 영감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니체는 예술이 ‘순간적인 착안’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태도를 비판했다. ④ 니체는 예술가를 ‘내버리고, 정리하며, 수정하는’ 존재로 보며, 가다머는 예술가를 기교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존재로 본다.

## 9.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의 ‘규명하다’의 의미는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히다.’이므로 ‘드러내는’을 ‘규명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달성하다’의 의미는 ‘목적한 것을 이룬다.’이므로, ㉠을 ‘달성하기’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② ㉠에 사용된 ‘엮매이다’의 의미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몹시 구속되다.’이므로 ㉠을 ‘구속되지’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④ ‘비범하다’의 의미는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이므로 ㉠을 ‘비범한’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⑤ ‘변화하다’의 의미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다.’이므로, ㉠을 ‘변화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 [10~13] (사회) 송덕수, 「신민법강의」

이 글은 법인의 자산 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설립되어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법적 인격체로, 자산의 소유권을 갖는다. 법인은 행위 능력이 없어서 실제 자산의 운용은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정

해진 절차와 범인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범인의 자산 운용에 대한 법적 통제는 모든 범인에게 적용되지만, 범인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다.

1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4문단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감액이 금지되지만, 적자가 누적되어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문단에 따르면 재단 범인의 기본 재산은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처분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감액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사단 범인이기 때문에 법인격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주어진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재단 범인의 목적 사업을 위한 자산인 기본 재산은 재단을 설립할 때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④ 1문단에 따르면 범인의 자산이 법적 통제 아래 운용되는 것은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통해 사회·경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⑤ 1문단과 2문단에 따르면 범인의 자산은 법적 통제 아래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범인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1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2문단에 따르면 재단 범인의 법인격은 자산 자체에 부여되어 있지만 범인은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산 운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설치된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범인의 기본 재산은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재단 범인은 기본 재산 외의 자산으로 수익을 추구하여 목적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1문단에 따르면 범인의 자산의 소유권은 범인에게 귀속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재단 범인의 이사회는 반드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 자산 운용의 주요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12.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5문단에 따르면 무상 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다. 4문단에 따르면 자본금은 발행된 총 주식수에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므로 무상 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의 수만큼 자본금이 늘어난다.

**[오답풀이]** ② 5문단에 따르면 무상 증자는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배당은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5문단에 따르면 무상 증자는 주가의 상승을 유발하고 4문단에 따르면 배당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5문단에 따르면 무상 증자와 배당은 모두 주식회사의 자산 운용 방법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⑤ 5문단에 따르면 무상 증자는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주가의 상승을 유발한다. 배당은 주주의 만족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 증자와 배당은 모두 회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13.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갑에게는 법인격이 아니라, 행위 능력이 없는 법인을 대신하여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1문단에 따르면 자산 운용에 대한 권한은 주주들이 아닌 정관 및 법령에 의해 부여된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따르면 배당은 이익 잉여금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배당 실행을 보류한 이유가 재원의 부족이라고 하였으므로, A의 이사회가 배당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이익 잉여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4문단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자본 거래를 통해 이

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A는 영업 이익을 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 거래를 통해 자본 잉여금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손실은 이익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으로 보전한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자본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자산 운용의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 정해진 절차에 어긋나게 자산을 운용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14~17] (기술) James G. Quintiere, 「화재 공학 원론」

화학 반응인 연소는 가연물, 열, 산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시작된다. 이후 연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유 라디칼의 연쇄적인 반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발생한 화재를 제압하는 소화 방법으로는 물리적 소화 방식인 냉각소화, 질식소화와 화학적 소화 방식인 억제 소화가 있다. 냉각소화는 열을 제거하여, 질식소화는 산소를 제거하여 자유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억제 소화는 자유 라디칼을 직접 제거하는 방식으로 소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특수한 화재도 있다. 열 폭주에 의한 화재의 경우 가연물이 열 폭주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연물에 대한 지속적인 냉각이 필요하다.

1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3문단에 따르면 한계 산소 농도는 가연물마다 고유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한계 산소 농도 값이 낮아진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연소열이 클수록 가연물의 한계 산소 농도 값이 낮다고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연소 시 많은 열을 방출하는 가연물일수록, 더 낮은 산소 농도에서도 연소가 지속될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가연물이 천천히 연소할수록 열 방출률의 값이 낮다고 2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빠르게 연소하는 가연물일수록 열 방출률이 높으므로 냉각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 제거율이 더 큰 냉각제가 필요하다. ④ 1문단에 따르면 자유 라디칼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소 반응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⑤ 2, 3, 4문단에 따르면 화학적 소화는 생성된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물리적 소화는 자유 라디칼이 새로 생성되기 어렵게 만든다.

1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2문단에 따르면 온도가 낮아지면 활성 분자의 수가 급감하고 그로 인해 자유 라디칼이 새롭게 생성되는 속도가 느려진다. 따라서 높은 온도는 자유 라디칼의 생성 속도를 빨라지게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화학적 소화 과정에서 높은 온도는 억제제를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높은 온도는 연소와 화학적 소화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4문단에 따르면 분자 내 결합력이 강한 억제제일수록 억제제가 분해되는 데에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므로 동일한 온도 상황에서 분자 내 결합력이 더 강한 억제제를 사용한다면 억제제가 분해되는 정도는 같거나 작다. 따라서 <보기>의 실험 상황에서 분자 내 결합력이 더 강한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 자유 라디칼 농도의 초기 감소 폭이 커질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열 폭주에 의한 화재가 진압되었으므로 A는 가연물 내부에서 연쇄적으로 지속되는 발열 반응인 열 폭주를 제어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③ 5문단에 따르면 내부에 열이 남아 가연물의 온도가 열 폭주를 일으키는 온도가 되면 재발화가 일어난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열 폭주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은 냉

각제를 지속적으로 분사하여 가연물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 라디칼 생성 반응이 둔화되어 농도가 낮아진 것은 냉각제를 지속적으로 분사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열 폭주는 가연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연소에 필요한 조건을 생성한다. 따라서 억제 소화에 의해 자유 라디칼 농도가 감소했다가 가연물 내부에서 공급되는 연소 조건들로 인해 자유 라디칼 농도가 다시 높아지게 된다.

17.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㉔의 의미는 자유 라디칼을 직접 제거하거나 그것의 생성을 둔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소화 과정의 핵심이 자유 라디칼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㉔는 냉각제의 열 제거율이 가연물의 열 방출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㉔는 이미 생성된 자유 라디칼이 다른 분자와 연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㉔는 억제제가 분해되어 포획제가 방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㉔는 내부에 열이 남은 경우 다시 열 폭주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남은 열에 의한 열 폭주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냉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18~22] (갈래 복합) (가) 김종해, 「항해 일지 1 - 무인도를 위하여」 / (나) 천양희, 「길을 찾아서 4 - 명암리 길」 / (다) 계용목, 「방서한」

(가) 김종해, 「항해 일지 1 - 무인도를 위하여」 ‘항해 일지’라는 연작시 중 첫 번째 시로, 이상을 향해 나아가던 화자가 소멸하는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적인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 이상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나) 천양희, 「길을 찾아서 4 - 명암리 길」 ‘길을 찾아서’라는 연작 시 중 하나로 화자는 내면 공간을 의미하는 ‘명암리’에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화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새 길, 낯선 길 등 다양한 길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내면’, ‘삶’에 모두 명암이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 계용목, 「방서한」 이 작품은 작가가 무엇인가를 찾지 못해 공허한 마음을 책으로 해소하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작가의 단칸 셋방에는 마음을 끄는 책이 없어서, 고향의 서재를 거쳐 장 속의 2, 3의 서가를 연상해 본다. 그러나 이들 역시 비어 있는 상태로, 작가는 서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신을 낡아 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자조를 보인다.

1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나)와 (다) 모두 ‘-ㄴ다’의 현재형 진술을 통해 인물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저’와 같은 지시어를 반복하고 있지만 (나)에는 지시어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 (나), (다) 모두 어조의 변화를 주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 ⑤ (나)에는 명암의 대비가 나타나지만, 색채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다)에서 ‘단칸 셋방의 객사’로부터 ‘고향의 내 서재’로 마음을 달리는 주체의 움직임은 공허함을 채울 책을 향한 내면 탐색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객사’에는 ‘마음을 끄는 책’이 없어 주체는 ‘고향의 내 서재’로 마음을 달린다. 그러나 ‘고향의 내 서재’ 역시 마음에 드는 책이 없어 주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대조적인 두 공간 사이의 움직임을 통해 주체의 내면 탐색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주체의 내면 공간은, 노를

것거나 정박하는 수상 공간으로 구조화되어 제시된다. 이는 ‘을지로’, ‘정계천’과 같은 현실 공간과 맞물려 있다. (다)에서 책을 그리워하는 주체의 내면 공간은 ‘서가’를 중심으로 ‘고향의 내 서재’와 ‘장 속’으로 구조화되어 제시된다. ② (나)에서 주체인 ‘나’는 내면 공간을 의미하는 ‘명암리’에 주목하며 ‘셋길들 뿔길들’을 포함한 내면을 의식하고 ‘명’과 ‘암’의 속성을 모두 지닌 ‘명암리’라는 지명이 떠올리게 하는 의미와 관련된 내면의 탐색을 수행한다. ③ (가)의 ‘노를 젓다가 잠시 멈추’는 행위와 (나)의 ‘새 길’을 만나고 ‘다른 길’에 머무르는 움직임에는 지속과 정지의 속성이 있다. 이러한 속성은 내면의 탐색 과정이 지속과 정지로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한다. ④ (가)의 주체인 ‘나’는 ‘노질을 계속해야 한다’고 진술하며, (나)의 주체인 ‘나’는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는 진술을 한다. 이러한 주체의 당위적 진술은 내면의 성찰과 탐색이 지닌 당위성에 대응하는 것이다.

#### 20.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은 ‘나’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고, ㉡은 ‘나’의 지향을 표상한다. ‘나’는 집어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면을 성찰하며 일상의 덧없음을 마주한다. 이러한 인식은 별빛이 표상하는 지향에 대한 선명한 자각으로 귀결된다.

#### 21.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화자는 ‘길 속의 길’을 ‘언제나 알 수 없’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저녁’의 시간이 ‘언제나 알 수 없’으리라는 회의를 유발한다는 것과, ‘길 속의 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라고 자문하며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빛’을 ‘밝고 어두운 것’으로 여기는 인식을 보여 주며 ‘빛’이 밝음과 그 이면의 어둠을 함께 지닌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② 화자는 ‘빛’뿐 아니라 ‘생’도 명암을 지녔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삶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③ 화자는 ‘낮설게 만’나는 ‘바람 소리 물 소리’에서 경이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이 경이로움은 화자로 하여금 내면의 ‘모르는 길’을 의식하게 한다. ⑤ 화자는 내면 탐색을 통해 내면에 명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언제부터 내 안에서 웅크린 길’을 ‘풀어놓는’ 것은 내면의 어둠을 주목하게 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다)의 글쓴이는 ‘서가에 가득하던 천여의 부수’를 다시 채우기만 하면 ‘내 마음의 공허도 채워질 그러한 부분이 있을 듯만 싶는데’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임의로 할 수 있을 여유의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서가에 가득하던 천여의 부수를 다시는 채워 보지 못할까’ 아득함을 느낀다. 따라서 ‘책을 다시 채워 넣기 시작’한다는 ㉡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인생의 감상 시절은 지났다고 보아도 좋으련만 내 마음은 무엇을 찾기에 그리 늘 우울한지.’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그 어떠한 책 속에는 족히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 줄 그러한 무엇이 들어 있을 듯만 싶은 것이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그것이 이제 공여의 일계에서 담배 연기로 화해 버리고 빈 서가만 남았거니 하니 마음의 공허가 더욱 심절하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그리하여 영원히 채울 길이 없는 그 서가와 같이 내 마음속에도 티끌과 거미줄만이 쌓이고 끄슬리는 가운데 나날이 남아 빠지는 것만 같다.’, ‘마음의 구석구석 들어차는 티끌 속에 케케묵어 가는 나라는 인간의 존재를 내다 보고는 어이없이 웃어 보곤 한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23 ~ 26] (현대 소설) 황순원, 「그늘」

이 작품은 시대의 변화를 마주한 ‘청년’의 불안과 혼란을 형상화한다. 술 냄새를 통해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청년’은, 할아버지의 냄새를 그리워하며 선술집에 다닌다. 그곳에서 ‘남도 사내’를 보며 동질감을 경험하며 반가움을 느끼지만, 퇴색한 듯한 그의 모습을 인지하며 이내 불쾌감을 느낀다. ‘남도 사내’와 조우한 후 방에서 갈등하던 ‘청년’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할아버지의 담뱃대를 찾고, 내면의 안정감을 경험한다. 이후, 선술집에서 다시 ‘남도 사내’를 만난 ‘청년’은 사내에게 먼저 말을 건네며 주영 구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떨어지고도 깨지지 않은 구슬을 보며 울고 웃는다.

#### 2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각하는 주체는 ‘청년’이므로,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는 서로 다르다.  
**[오답풀이]** ① ‘청년’의 의식을 ‘청년’의 독백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② 청사단령의 내력을 덧붙이고 있다. ③ 초점화된 인물인 ‘청년’의 관점에서 할아버지와 관련해 회상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남도 사내’의 목소리를 인용 부호 없이 드러내고 있다.

#### 24. [출제의도] 인물의 행위의 의미를 파악한다.

㉡와 ㉢은 모두 ‘청년’이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부재하는 할아버지의 존재감을 느끼는 행위이다.  
**[오답풀이]** ② ㉡, ㉢ 모두 성찰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유도하지 않는다. ③ ㉡, ㉢ 모두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행위가 아니다. ④ ㉡은 인물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은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⑤ ㉡은 생전 할아버지의 행위를 떠올리며 할아버지를 모방하는 것이며, 순간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25. [출제의도] 배경의 의미를 파악한다.

청사단령의 조각, 주영 구슬, 담뱃대 등은 현재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청년’의 인식이 투영된 대상이다. ‘청년’은 이러한 사물들이 ‘저녁 그늘’ 속에서 어두워 가는 것을 보고 있다.

**[오답풀이]** ② 저녁 그들은 ‘청년’의 부정적 전망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청년’은 과거를 표상하는 대상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저녁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흐리게 하는 계기가 아니다. ④ 저녁 그들은 상황 변화의 기점을 드러내는 표지가 아니다. ⑤ 저녁 그늘을 통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청년’은 ‘남도 사내’가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 추측하며 주영 구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으므로, 이 질문에 ‘남도 사내’에 대한 의구심이 투영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역한 냄새를 풍기는 어항을 뜯을 향해 던지는 행위는, ‘청년’이 자신의 정체된 상황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의식했음을 암시한다. ② 냄새를 지우기 위해 담배 냄새를 떠올리며 낡은 함으로 향하는 것은, 익숙한 과거의 대상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③ ‘청년’이 청사단령, 구슬 알들에 대해 낯고 퇴색했다고 인식하는 것은, 과거에 의지하는 대응 방식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지 않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⑤ 흩어진 구슬 알들을 보며 눈물 섞인 웃음을 보이는 것은, 의지하는 과거의 대상이 내포한 불안정성에 대한 ‘청년’의 복합적인 감정이 표출된 것이다.

#### [27 ~ 30] (고전 시가) 신계영, 「월선헌심육경가」

신계영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은 은일 가사이다. 벼슬살이에 시달리다가 시골로 돌아와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전원생활의 재미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 27.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시골집과 강마을을 흰 구슬로 꾸몄으니 조물주 야단스러운 줄 이제야 다 알겠구나.’, ‘고목 사립문에 성긴 연기 비꼰으니 어렵פות한 울타리 그림 속 같구나.’ 등에서, 앞부분에서는 ‘시골집과 강마을’의 모습과 같은 경물을 관찰한 바를 제시하고, 뒷부분에서는 관찰한 경물에 대한 감상을 서술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화자가 역사적 인물을 부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회고적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는다. ② 부정적 세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변함없’이 ‘푸른빛’의 ‘술’과 ‘맑은 빛이 예와 같’은 ‘달’에 자연물이 지닌 불변성이 드러나기는 하나, 이에 대비하여 인간사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소와 양이 내려오’고, ‘늪은 중이 예불’하는 모습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상이 드러나기는 하나 이것이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라 할 수는 없다.

#### 28.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에서는 ‘풍경 맑은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늪은 중이 예불’하는 행위가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관습적 행위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백옥’, ‘흰 구슬’과 같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산봉우리’와 ‘시골집’, ‘강마을’이 눈으로 덮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는 ‘가난하게 산다고 흥이야 없겠는가’라는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소박한 삶에서 느끼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④ ㉢에서는 ‘심술궂은’, ‘야단스러워’, ‘쓰니’와 같은 표현으로 ‘구름’과 ‘바람’에 인격을 부여하여 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바람에 의해 하늘이 다시 구름 없이 깨끗해지는 자연 현상을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⑤ ㉢에서는 ‘이 맑은 경치 값이 있다 하면’이라는 가정적 표현을 통해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맑은 경치’를 누릴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시상 전개 of 양상을 이해한다.

‘가는 듯 돌아오’는 ‘기러기’는 붉은 ‘석양’의 시간을 의식한 화자가 주목한 자연물로, ‘가는 듯 돌아오’는 ‘기러기’가 ‘석양’의 시간을 의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을이 다 지나고 북풍이 높이 부’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의 계절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의식한 화자는 ‘저녁 눈’이 날리는 풍광에 주목한다. ② 화자가 의식한 ‘겨울의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그윽한 향기를 머금’은 ‘매화’와 ‘푸른빛이 변함없’는 ‘술’은, ‘시들어 말’라버린 ‘성 밖의 초목’과는 대조를 이루며, ‘절개’라는 특정한 가치를 표상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④ 저물녘이 보금자리로 회귀하는 시간임을 의식한 화자는 ‘소와 양’도 보금자리로 내려오는 모습에 주목하고, ‘오며 가며 하는 행인’에게도 ‘어디를 향하여 바쁘게 가’는지 묻고 있다. ⑤ 어슴푸레한 ‘저녁 빛’을 의식한 화자는 ‘푸른 산’과 ‘까마귀’를 각각 멀리 보이는 것, 가까이 날아드는 것과 같이 원근에 따라 대비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 30.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달빛은 ‘온 산과 골짜기’를 밝게 비추며 충만하게 한다. 이를 인식한 화자는 달빛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듯이, 자신의 잔에도 술을 가득 부어 채운다.



[오답풀이] ① 달빛은 화자의 ‘넋이 다 맑아지’게 하는 존재로 ‘자나 깨나 잊을’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그림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② 화자는 밝게 비추는 달빛을 인식하지만, 이후 주변 자연물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사사로이 비추지 않’는 달빛은 엄밀함이 아닌 공평함으로 인식되며, 화자가 ‘주렴’을 ‘건’는 것은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닌 달빛을 감상하기 위해서이다. ⑤ ‘궁궐’에도 비추는 달빛은 연군의 정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으나, ‘웬만하면 날겠’다는 것은 ‘표연한 흥취’를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지 임금에게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31. [출제의도] (고전 소설) 작가 미상, 「낙천동운」

이 작품은 주인공 왕석작과 동예아의 낭만적 사랑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생활상을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국문 장편 소설이다. 남녀 주인공은 사랑과 이별, 재회를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예아를 비롯한 여성 인물들은 주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연대하여 위기에서 벗어난다. 한편 왕석작은 공적인 의무보다 사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유교적 덕목에 얽매이지 않는 개성적 자아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3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왕치는 구양의가 병든 왕석작을 간병하기 위해 태의와 함께 떠난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왕석작에게 가고자 구양의를 불러 왕석작이 있는 곳을 물어본 것이다. 따라서 왕치는 왕석작이 숨은 곳이 어디인지 알면서도 구양의에게 모르는 척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③ 동전책은 왕석작이 머물고 있는 ‘안채’에 ‘하루에 두어 번씩’ 들어와 보았다. ④ 하선은 왕석작이 동예아에 대한 걱정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형용도 초췌’해진 것을 보고, 자신들의 정체를 왕석작에게 밝히자고 동예아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왕석작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여 진실을 밝히자고 동예아에게 건의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동예아가 자신의 종적을 왕석작에게 알릴 경우, ‘형세도 편치 않을 것’이고 왕석작의 ‘심사만 더욱 어지럽힐 것’이라고 하선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종적이 누설될 경우 부정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음을 알 수 있다.

32.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A]에서 왕석작이 조정으로의 귀환을 재촉하는 구양의에게 자신의 병이 깊으니 병을 조리할 수 있게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조정의 명에 따라 전쟁터에 나감으로써 부인 동예아와 이별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다. 또한 [B]에서 화연이 으뜸 집사에게 자신이 왕석작의 부인 동예아라고 한 것은, 황장으로 끌려와 위기에 처한 동예아를 구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다. 따라서 [A]와 [B]에서는 모두 자신이 의도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를 기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A]에서는 왕석작이 병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B]에서는 화연이 동예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감추고 있다는 점에서 [A]와 [B]에서는 모두 진실을 은폐하고 있지만, 이는 인물 간의 관계를 역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A]에서는 분란을 조장하기 위해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B]에서는 화연이 동예아를 황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으뜸 집사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 준다면 몸소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이해한다.

동예아는 자신의 아버지 동전책이 황제의 노여움을 산 전력이 있어 불안한 상황에서, 왕석작이 황귀비가 주선하는 호 씨와의 혼인을 거절한 후 자신을 부인으로

로 삼아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경우, 자신은 ‘죽지는 않더라도 집을 떠나 떠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왕석작에게 피병을 부리다가 진실이 드러나면 무슨 말로 변명을 할 것인지를 따져 묻는다. 따라서 동예아는 왕석작의 ‘함께 돌아갈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은 후일을 생각하지 않는,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는 ‘어설픈 생각’이라고 평가하며 실행을 만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동예아는 왕석작이 호 씨와 혼인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은 ‘죽지는 않더라도 집을 떠나 떠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의를 지키려는 왕석작의 마음에 감동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동예아는 아버지 동전책이 황제의 노여움을 산 전력이 있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왕석작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황제의 심기를 거스른 동예아의 집안은 무사하지 못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왕석작은 환란으로 인해 동예아와 이별하게 되자, 동예아에게 ‘후환’이 닥칠까 봐 걱정한다.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왕석작은 전쟁터에 가면서도 ‘매사에 의욕’이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 따라서 왕석작이 ‘후환’을 걱정하고 ‘매사에 의욕’을 잃은 것은 동예아와의 이별 때문이며, 하선 일행의 속임수에 넘어가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왕석작이 ‘기린 같은 아들’과 ‘달 같은 부인’과 지내며 ‘만사’를 잊었다는 점에서, 공적인 의무보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하선이 동예아와 원매를 ‘우리 형제’로 칭하며 신분과 성별을 감추고 ‘나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 세 사람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

35	④	36	④	37	⑤	38	③	39	③
40	⑤	41	①	42	④	43	①	44	⑤
45	②								

35.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알고 계신가요?’,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와 같이 발표 도중 청중에게 질문을 하며 한글 서예의 국가 무형유산 지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료에서 서로 다른 점을 찾았는지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주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전문가의 발화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③ 화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자료 활용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

3문단에서 궁체가 판본체와 달리 중성자의 맨 오른쪽 세로획을 기준으로 글자들을 맞추어 쓴다는 것을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판본체가 획의 굵기를 일정하게 하면서 글자를 정사각형에 맞춰 조형한다는 특징을 [자료 1]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하나의 점이던 아래아가 『석보상절』에서는 짧은 획으로 바뀌었음을 [자료 1]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궁체가 판본체와 달리 마름모나 삼각형, 세로가 긴 사각형의 모양으로 조형된다는 것을 나란히 제시된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장봉을 사용한 판본체는 획의 끝이 뾰족하고, 노봉을 사용한 궁체는 획의 끝이 뽕족하다는 것을 [자료 3]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을 파악한다.

‘학생 2’는 발표에서 자신이 궁금했던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학생 3’은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기는 하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궁서체가 궁체를 본떠서 만든 디지털 글꼴이라는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서예에 작가의 감정과 개성이 담길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판본체가 국가에서 제작한 서체라는 정보와 궁체가 궁중에서 체계화한 서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두 서체가 국가에서 주도하여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한글 서예의 서체를 기반으로 만든 디지털 글꼴에 대해 조사해 보려 하고, ‘학생 3’은 판본체와 궁체 외에 민간에서 만들어진 서체에 대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려 하므로,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질문을 제시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나, 대화 참여자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 시간에 결정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대화 참여자의 발언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②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와 ‘학생 3’이 언급한 ‘따뜻한 우편함’에 관한 내용을 글의 도입부에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질문을 통해 ‘학생 2’의 직전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마지막 발화에서 ‘학생 2’와 ‘학생 3’의 발언을 정리하여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발화의 양상을 파악한다.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추측이 자신의 직전 발화에 담긴 내용의 의미와 비슷함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제시한 정보를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40.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글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다.

(가)의 ‘학생 3’은 마지막 발화에서, 가까운 사람 한 명을 수신인으로 하여 편지를 쓰면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글을 읽게 된다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편지 쓰기가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나)의 3문단에서 편지를 쓸 때 일상적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유와 함께, 편지 쓰기가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이유로 제시되었다.

[오답풀이] ① (가)의 ‘학생 3’은 두 번째 발화에서 ‘따뜻한 우편함’을 통한 편지 쓰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나)의 1문단에서 편지 쓰기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② (가)의 ‘학생 2’는 네 번째 발화에서 편지 쓰기가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나)의 2문단에서 편지를 통해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제시되었다. ③ (가)의 ‘학생 2’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글쓴이가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나)의 2문단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제시되었다. ④ (가)의 ‘학생 2’는 마지막 발화에서 편지를 쓸 때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말보다 편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나)의 3문단에서 말하기의 즉각적 특성과 대비되어 제시되었다.

41.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을 파악한다.

(나)의 2문단에서 편지 쓰기가 지닌 고백적 글쓰기의 성격을 수신인을 향한 고백적 글쓰기와 자기 고백적 글쓰기로 나누고, 편지 쓰기의 효과를 이러한 편지 쓰기의 성격에 따라 제시하였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고쳐 쓴다.

4문단 초고에서는 ‘편지를 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서술하였다. 이와 달리 (나)의 4문단에서는 ‘편지를 쓰며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나)의 2문단에 제시된 편지 쓰기의 효과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43. [출제의도] 초고의 글쓰기 방식을 파악한다.

초고의 3~4문단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의 진행 과정과 관리 방법을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알레르기 비염의 여러 관리 방법을 소개했지만,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③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제시했지만, 요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 않다. ④ 알레르기 비염의 심각성을 언급했지만,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⑤ 알레르기 비염이 주는 불편함을 언급했지만, 다양한 사례별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한 계절뿐 아니라 일 년 내내 지속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내용은 동아리 부장의 조언 중 첫 번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정확한 진단에 기반하여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동아리 부장의 조언 중 두 번째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ㄷ은 매우 낮은 농도의 알레르겐을 규칙적으로 투여해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면역 요법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해, 면역 체계의 과민 반응을 예방하는 면역 요법을, 4문단에 알레르겐에 의한 염증을 완화하는 관리 방법의 하나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ㄴ을 활용해, 교실 내에서 집먼지진드기 증식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3문단에 알레르겐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는 회피 요법의 예시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ㄱ-1과 ㄱ-2를 함께 활용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월별 추이와 주요 알레르겐에 대한 내용을, 2문단에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내용의 근거로 들어 보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ㄱ-1과 ㄴ을 함께 활용해, 알레르기 비염을 겪는 특정 연령층의 비율을, 1문단에 알레르기 비염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나타난다는 내용의 근거로 들어 보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ㄱ-2와 ㄷ을 함께 활용해, 많은 사람들이 가진 알레르겐에 대해 효과를 보이는 치료 방법을, 4문단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기존 관리 방법의 대안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⑤	37	⑤	38	①	39	③
40	③	41	②	42	④	43	②	44	③
45	①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와 15세기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을 이해한다.

현대 국어와 15세기 국어 모두에서 ‘ㄷ’은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므로, 종성에 ‘ㄷ’이 오면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를 제한하는 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한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음절 구조 제약은 한 음절 내에서만

일어난다. ②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는 모두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항상 적용된다. ③ 15세기 국어에는 ‘ㄱ’나 ‘ㄴ’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ㄱ’으로 교체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⑤ 15세기 이래로 음절 종성에 대한 제약은 종성에 놓일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최대 두 개에서 한 개로, 자음의 종류는 8개에서 7개로 줄어드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36. [출제의도] 15세기 국어의 음운 변동에 대해 이해한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음절 종성에서 ‘ㅈ, ㅊ’이 ‘ㅅ’으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쫘- + -디’, ‘얹- + -더라’에서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값’은 체언으로 15세기 국어의 ‘값 + 파’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② 15세기 국어에서 ‘ㅅ’으로 시작하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인 ‘닭-’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③ 15세기 국어에서 ‘ㄹ’은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으로, ‘늑- + -고’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 ④ 15세기 국어의 ‘얹- + -는’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37. [출제의도] 높임 표현에 대해 이해한다.

‘께’는 객체인 ‘아버지’를, ‘-습니다’는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둘은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시-’는 주체인 ‘선생님’을, ‘요’는 대화 상황의 청자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둘은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② ‘주무시는’은 주체인 ‘어머니’를, ‘께’는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둘은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③ ‘여쭙고’는 객체인 ‘할머니’를, ‘찾아뵈어도’는 객체인 ‘삼촌’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④ ‘모시고’는 객체인 ‘할머니’를, ‘-십시오’는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38. [출제의도] 합성 부사의 구성 요소에 대해 이해한다.

‘잘못’은 앞 어근인 ‘잘’과 뒤 어근인 ‘못’의 품사가 모두 부사인 합성 부사이다. [오답풀이] ② ‘하나하나’는 수사인 ‘하나’가 반복되어 결합한 단어이다. ③ ‘어느새’에서 ‘어느’는 관형사이고 ‘새’는 명사이다. ④ ‘이른바’에서 ‘이른(이르다)’은 동사이고 ‘바’는 명사이다. ⑤ ‘두루두루’는 부사인 ‘두루’가 반복되어 결합한 단어이다.

39. [출제의도]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에 대해 이해한다.

ㄷ. 관형사절 ‘그가 제약 회사에 다녔다는’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으며, 필수적 부사어 ‘제약 회사에’가 있다. ㄹ. 명사절 ‘동생이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으며, 필수적 부사어 ‘자기 일에’가 있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소통 양상을 파악한다.

시청자가 텔레비전 방송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진행자’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란 어떤 것일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와 같이 시청자가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도서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다음 방송에서 소개할 내용을 예고하고 있지 않다. ② 도서관 소개 영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용어의 개념 설명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그 특성을 이해한다.

(나)에서 ○○ 도서관 1층의 청소년 공간을 보여주는 사진은 제시되어 있지만 출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좋아요(25)’를 통해 게시물에 대한 수용자의 선호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관심사’, ‘일상’, ‘여행’, ‘사진첩’과 같이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는 범주가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④ 제목과 소제목, 표 내용 중 ‘청소년 도서’ 등이 다른 글씨보다 크고 굵게 나타나 있다. ⑤ ‘도서관’, ‘지역’ 등의 단어에 ‘#’ 기호가 붙어 제시되어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용 양상을 파악한다.

‘하나’는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소규모 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게시물에 제시된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도서관 동아리 누리 소통망에 이 게시물을 공유해도 되는지 물으며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②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 도서관에 가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③ ‘현서’는 ◇◇◇ 작가의 책이 이달의 독서 모임 책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게시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⑤ ‘지은’은 진로 관련 도서가 대출이 안 된다는 게시물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방과 후에 도서관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주말로 조정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한다.

접속 부사 ‘그래서’를 통해 설문 조사에서 편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이 ○○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책을 보거나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 근거임을 알 수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한다.

‘지민’의 첫 번째 발화와 (가)의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수정 가능합니다’라는 안내를 통해, 현재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접속 주소를 보내면 슬라이드 내용을 수정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접속 주소가 자동으로 공유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서’의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 제목이 현재가 쓴 거구나.’라는 말을 통해 수정 주체를 확인할 수 있고, ‘하린’의 ‘시계 모양 버튼을 눌러서 작성 기록을 확인하고 이전 제목이랑 비교해 봐.’라는 말을 통해 수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하린’의 ‘현재가 슬라이드 제목을 고치고 있나 봐. 수정한 부분 옆에 이름이 보여.’라는 말과, (가)에 ‘현재’의 이름이 제목 옆에 보이는 것을 통해 수정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모든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라는 안내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수정 내용이 모두 자동 저장됨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채팅 창을 확대한 (나)에서 학생들은 작업 내용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을 파악한다.

‘서윤’이 ‘환기에 관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자고 언급하였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면 환기에 관한 내용과 온도와 습도 유지에 관한 내용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환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소제목 바로 아래 제시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하린’이 ‘환기가 실내 공기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 주자고 말한 것을 반영하여, 환기 여부에 따른 실내 미세 먼지 농도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추가하였다. ③ ‘현재’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과 실내 공기 질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추가하’자고 말한 것을 반영하여,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한 전문가 말을 추가하였다. ④ ‘은서’가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한 것을 반영하여,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⑤ '주민'이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 누리집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겠다고 말한 것을 반영하여, 이러한 정보를 더 알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제시했다.